# 4 채용신이 남긴 초상화



**실명씨상** 失名氏像

채용신 1919년 비단에 색絹本彩色 87.5×57.5cm 고려대학교박물관



채용신필 초상

蔡龍臣筆 肖像

채용신 1923년 비단에 색絹本彩色 101×57.7cm 국립중앙박물관



무명초상

無名肖像

채용신 1935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106×48cm 전북도립미술관



# 화가 채용신은 특별하다

- 一. 무관 출신의 양반임에도 직업적 화가로 활동하였다.
- 二.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 트.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가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 四. 공방을 운영하며 초상화 주문제작, 그리고 광고 전단을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 五. 사진을 참고하거나 사진만 받아 초상화를 제작했고, 아들 내외가 사진관을 운영하였다.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0(장미동 1-67) TEL. 063-454-7870 FAX. 063-443-8284 http://museum.gunsan.go.kr

전시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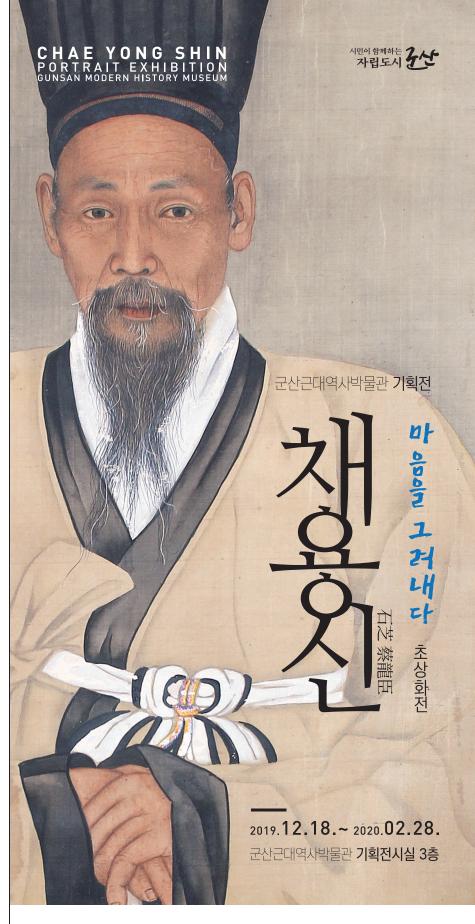
김중규

전시기획

이경원 박형제

전시진행

이은영 정의진 이상우 노영미 고보연 배수정 이 호 김봄이







#### 전시를 열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 초상 화의 전통을 계승한 마지막 화가 채용신 의 초상화를 군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자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신은 무과에 급제하여 첨절제사, 도호부사, 군수에 임명되면서 가선대부(종2품)에 오른 양반 출신이며 왕실의 주관화사로 두 차례 발탁되어 어진을 모사하였습니다. 이후 초상화 전문화가로 활동하며 사대부, 의병장, 부부초상, 여인초상, 미인도 등 신분과 성별의 구분 없이 많은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채용신은 그의 90년 평생 중 40여 년을 전북과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1905년 일제의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일제 침략이 노골화되자 1906년 20년의 관직 생활을 마감하고 선대가 살아오던 전라도 전주 우북면(현 익산 왕궁면)에 낙향하여 전업 화가로 그림을 그리면서 면암 최익현과 전북 옥구 출신 돈헌임병찬, 간재 전우 등과 교유하며 우국지사들의 초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전시는 채용신이 남긴 '초상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전북 출신의 유학자 초 상화와 신윤복의 <미인도>영향을 받은 조선의 <팔도미인도> 병풍, 전신사조傳神 寫照의 전통적 화법畫法과 채용신만의 극 세밀한 필법筆法을 현장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를 위하여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9. 12. 군산시장 강임준

### 1 전북에서 만난사람들



**황종윤 초상** 黃鍾允 肖像

채용신 1911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123×73.5cm 국립전주박물관



<mark>김근배 초상</mark> <sub>金根培 肖像</sub>

채용신 1920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112.5×65cm 전주역사박물관



**김영구 초상** <sup>金榮九</sup> 肖像

채용신

제용선 1914년 비단에 색 編本彩色 147×75cm 국립전주박물관



박해창 초상

朴海昌 肖像

채용신 1928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110×63.4cm 원광대학교박물관

# 02 화폭에 담은 조선의 팔도미인도



팔도미인도

八道美人圖

전 채용신 20세기 초 종이에 색 紙本彩色 각 130.5×60cm OCI 미술관



# 03 3대로 이어진 초상화가의 길



#### 홍순학 초상

洪淳學 肖像

채용신 1920년 비단에 색 絹本彩色 92×63cm 개인소장



#### 홍경하 초상

洪景夏 肖像

채상묵 1941년 비단에 색 編本彩色

비단에 색 <sub>絹本彩</sub> 91×58cm 개인소장